| | 보 도 자 료 | |
|---|---|---|
| | 작성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044-960-0303) |
| | 배포 |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br>홍보출판팀 이호창 팀장(044-960-0428) |
| 보도일시 | ■ 즉시 보도 가능 | |

#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6호

□ 비수도권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요구된다.

○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된 **'지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6호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61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 육성의 비가시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해관계자는 역내 정주 여건 미흡,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열악, 전문 경영인과 기술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선택과 집중)**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천문학적인 자본, 오랜 제품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형식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 면적과 인적 자원에 비해 과다한 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문 필요

○ **(클러스터 전문화)**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클러스터가 지닌 한 가지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특화형/전문형 클러스터 육성 목표 필요

○ **(개방형 클러스터)** 비수도권 클러스터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다 소화하는 완성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미흡한 점은 역외 지역과 연계하는 개방형 클러스터 모델 구축 필요

○ **(정주 여건 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주거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 후생 복지 마련 필요

- **(교통 서비스)** 역내 주요 기관 간 교통 서비스 불편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간 광역 교통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클러스터 고립화와 기능적 분절 문제 해결 필요

○ **(전문인력 육성)** 역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경영, 영업, 기술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 **(투자유치)** 광역 내 유망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광역권 벤처펀드 조성

-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역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과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첨부. 국토정책brief 916호(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